

1

2025. 3. 2.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12:1-4

제목: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표준새번역) 12: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 주어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다.

(ESV) 12:1 And Samuel said to all Israel, "Behold, I  
have obeyed your voice in all that you have  
said to me and have made a king over you.

12:2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지도하여 왔다.

12:2 And now, behold, the king walks before you,  
and I am old and gray; and behold, my sons  
are with you. I have walked before you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12:3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12:3 Here I am; testify against me before the Lord and before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Or whose donkey have I taken? Or whom have I defrauded? Whom have I oppressed? Or from whose hand have I taken a bribe to blind my eyes with it? Testify against me and I will restore it to you."

12:4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12:4 They said, "You have not defrauded us or oppressed us or taken anything from any man's hand."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일을 마무리하며 은퇴하는 사무엘이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나실인'으로 유명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성인아이였고, 사무엘은 거절 당하고, 거부당한

상처가 크고, 자존감이 낮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자랐고, 눈치보며 애어른으로 10 대를 보냈을 것이며, 본인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마 어른이 되어 사사로, 제사장으로 일하면서도 사무엘은 무던히도 고뇌하며, 매번 자기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씨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좋은 모델로 제시됩니다. 특히 오늘 그의 마지막 고별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사무엘이 보여 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첫번째는

## ✓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본문 1 절, 사무엘이 고별사를 시작하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인 자기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던 때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그때 상처받고, 거절과 상실을 경험했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웁니다.

(표준새번역) 12: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 주어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다.

(ESV) 12:1 And Samuel said to all Israel, "Behold, I have obeyed your voice in all that you have said to me and have made a king over you.

2 절,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이제 물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백성들을 잘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잘 전하였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늘 충실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사였습니다.

12:2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지도하여 왔다.

12:2 And now, behold, the king walks before you, and I am old and gray; and behold, my sons are with you. I have walked before you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삼손처럼 힘이 세지 않았지만, 기드온처럼 큰 승리를 거두는 용사는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마 25:21 의  
착하고 신실한 종의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ESV) Matthew 25:21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적은 일, 보잘 것 없는 일, 쉬운 일, 하찮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주는 보람이 크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칭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일, 하나님 나라 일은  
거창하고 크고 멋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그  
사명에 충실합시다. 그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딤후 4:7,  
모두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고, 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 어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나의  
욕심과 싸우고, 공동체를 흩어버리려는 세상 문화와  
싸우고, 작은 일에도 밀알처럼 섬기며 싸웁니다.

(표준새번역) 디모데후서 4:7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ESV) 2 Timothy 4: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후에, 8 절, 예수님 만나면 그의로운 재판관께서 우리에게 월계관, 그 명예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표준새번역) 8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ESV) 8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노벨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보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상이 더 큼니다. 수학의 필즈상보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맨부커상보다, 영화의 아카데미상, 칸의 황금 종려상보다, 음악의 그라미 상보다, 저널리즘의 풀리처상보다, 스포츠의 올림픽 금메달보다, 발로도르보다, 기술 컴퓨터분야의 튜링상보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주시는 그 상이 더 큰 상입니다. 그 상을 받으십시오.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 하찮은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 아니라

##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12:3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12:3 Here I am; testify against me before the Lord and before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Or whose donkey have I taken? Or whom have I defrauded? Whom have I oppressed? Or from whose hand have I taken a bribe to blind my eyes with it? Testify against me and I will restore it to you."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자, 4 절,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12:4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12:4 They said, "You have not defrauded us or oppressed us or taken anything from any man's hand."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 같은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0 명으로 미디안 12 만명을 이기고 난 후,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과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금으로 우상 숭배에 사용합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 70 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들에게까지 권려과 부를 세습합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사가 되고, 형제 70 명을 죽이고,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서 동쪽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사사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술을 가까이하고, 경술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교만하기 까지 했습니다.

시 24:3,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표준새번역) 시편 24:3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ESV) Psalm 24:3 Who shall ascend the hill of the Lord?  
And who shall stand in his holy place?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24:4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Psalm 24:4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what is false and does not swear deceitfully.

그리스도인이 일 잘하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일 잘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표준새번역)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ESV) James 1: 27 Religion that is pure and undefiled before God the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and to keep oneself unstained from the world.

고아와 과부는 그때도 지금도 가장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와 주고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정결함은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속, 세상의 악한 흐름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실합니다. 친교  
준비하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에 당첨 되시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페서, 사람 앞에서

**→ 친교시간, 이런 대화 어떠세요?**

1.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2. 사무엘처럼 충실하고 정결하기 위해, 내가 로고스, 레마, 교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로고스, 레마, 교회, 가정에 충실하게 하소서
-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